

법난(法難)

(李洪志, 2024년 6월 5일)

법난(法難)

대법제자가 사부를 따라 중생을 구도하는 이것은 역사의 필연이고, 또 당신들이 사전에 한 서약이며, 더욱이 우주 창립 이래 있어 본 적이 없는 위대하고도 신성한 영예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어렵고도 험악하다. 인류는 대법제자가 인류 중에서 표현하는 홍대한 慈悲(츠뻬이)를 이해하기 몹시 어려운데, 대법제자가 반(反)박해 활동하고 사람을 구하고 있는 동시에, 인류 배후의 그러한 악령(惡靈)이 사람을 사주해 인류의 무슨 이유를 들어 대법제자와 나를 탄압하고 박해한다.

중국에서 1999년에 법난(法難)이 나타나서부터 줄곧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든 전 세계에서든 여태껏 끝난 적이 없다. 사람을 구하려 하면 역사상 사람이 빚은 업력을 건드리게 되는데, 마귀는 사람의 업력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교란하고 파괴한다. 대법제자는 사부를 따라 사람을 구하는 동시에 자신도 구도하고 있고, 본인의 업력도 없애고 있는데, 마(魔)는 대법제자 본인의 업력을 이용해 대법제자가 사람을 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구도 받는 세인은 역사상 남겨진 죄업 전부를 스스로 갚을 방법이 없으므로 신(神)이 사람에게 일부분을 선해(善解)해 줘야 하고, 그 자신이 일부분을 없애도록 하며, 사부인 나 또한 사람을 대신해 일부

분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구하는 생명이 많을수록 사부가 감당하는 것도 더욱 커진다. 대법제자가 반박해 활동 중에 조금만 조심하지 않아도 곧 마난(魔難)이 있게 될 것이다.

현재 대법제자가 운영하는 매체에서 나타난 문제는 주로 수련생 스스로 잘하지 못해 조성된 것이지만 인류 배후 다른 공간의 요소도 있다. 당신들은 반박해 중에 돈이 없으면 매우 어려우므로 돈을 좀 만들어서 중공의 박해를 반대하려 하는바, 여기에 부적절한 점이 있어도 미국정부도 이해할 것이라고 여기는데, 이것은 당신들 자신이 생각한 것이다. 당신들은 생체장기적출에 직면해 매일 박해로 사람이 사망하는 상황에서 이 돈을 반박해에 사용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기에 응당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제자는 언제나 자신의 길을 바르게 걸어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당신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 나는 우리가 사람을 구하고 있는 동시에, 아직도 15%의 업력을 없애지 못했음을 알고 있다. 이것은 중생구도 20여 년간 남겨진 것으로, 이는 매우 거대한데, 나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직면해야 할 거대한 압력과 감당해야 할 것들이 하나하나 다가올 것이다. 사람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데, 그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사람을 구하는 성도(聖徒)인 ‘선원예술단(神韻藝術團)’에 대해서도 한창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

우리 대법제자로 말하자면, 중공사악의 강대한 선전기구에 직면하여, 중공 정권이 전국적인 힘을 이용해 전방위적으로 탄압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중국대륙 밖의 대법제자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부모들도 자녀를 데리고 반박해에 참여했다. 더욱 효과적으로 박해에 반대하기 위해, 페이텐학교는 학생들이 일반학과목을 잘 배우게 하는 동시에, 아이들을 예술가로 양성해, 비폭력의 방식으로 박해에 반대하여, 중공 이전의 중국을 펼쳐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중공을 똑똑히 인식하게 하고, 동시에 박해를 폭로하고, 동시에 또 말후(末後) 신이 사람을 구하고 있는 소식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공연 중에는 바른 에너지로 세인의 재난을 해소(消解)해 줘는데, 미국인과 전 세계가 모두 혜택을 입고 있다. 다시 말해 대법 중의 매 한 일원(一員)은 모두 반박해 중에 있다.

중국은 어른과 아이 모두 마난 중에 있다. 아이들도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또 박해당해 사망하고 있다. 선원에는 일부 실습 중인 학생 배우가 있는데, 그들의 부모는 자신들 자녀들이 공부하는 한편 반박해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부모가 아이를 페이텐학교에 보낸 목적 또한 이를 위함인데, 입학 시 학생들은 모두 학교 측으로부터 페이텐에 왜 오려 하는지 질문을 받은 적 있는데, 그들은 모두 사부를 도와 사람을 구하겠다고 말했고, 모두 중공의 박해를 폭로하고 중국대륙의 동수를 구출하는 선원공연에 무척 참여하고 싶어 했다.

사람을 구하고 박해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로서 말하자면, 우리 어른과 아이들 모두가 해야 할 몫이 있는데, 어떤 아이는 매우 견정하다! 사실 반박해는 우리 수련단체 내부의 일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정부, 각 대기업을 포함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후에는 또 미성년 학생을 배우로 이용한다는 구실을 들어 선원을 공격하도록 세인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학생들의 실습 과정이다.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이 한차례 박해에 직면해, 우리는 오직 전체가 반박해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그것을 구실로 선원을 타격한다면, 미국이 그래도 미국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실 법난은 지역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표현이 다를 뿐이다. 법난 중에서 또 최후에 남겨질 생명과 도태될 생명을 선택하고 있는데, 또한 대법제자 중에 될 수 있고 될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한다.

師 李洪志

2024년 6월 5일